

전주경제와 상생하는 제2의 휴비스 출범

시·의회·휴비스, 전주공장 증설 관련 협약 체결 휴비스, 630억원 증설투자 230여개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섬유 제조기업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규모 증설투자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 전주시의회, (주)휴비스는 29일 (주)휴비스 전주공장에서 김승수(전주시장), 박병술(전주시의회위원장), 신유동(휴비스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비스 전주공장 증설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주)휴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630억원을 투자, 팔복동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늘리고 기존 울산공장 이 맡아온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휴비스는 울산공장 근로자 130명과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인력 40명을 포함, 총 23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휴비스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공정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주공장 증설투자로, 전주와 울산으로 각각 나뉜 국내 생산라인을 통한, '제2의 휴비스 출범'을 앞당길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휴비스는 전주, 울산,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가동했으며 대전에

R&D센터를 운영했다.

시는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효성 증설투자 및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과 맞물려 대규모 투자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시의회는 협약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신유동 (주)휴비스 대표이사는 "증설투자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주시에 감사하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 화는 기업의 성장과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모두 도와드릴 것"이라며, "휴비스의 전주공장 증설투자결정이 전주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증설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해준 신유동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휴비스 관계자들에게 전주시민을 대표해 감사 드



29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김승수(전주시장), 박병술(전주시의회위원장), 신유동(휴비스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비스 전주공장 증설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린다"며, "전주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든든한 지름길은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 만큼, 기업들이 잘 성장해 기업의 이익이 시민들의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휴비스는 지난 2000년 11월 SK케미칼과 삼양사가 각각 자사의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5대5 합작 법인으로, 주력 제품은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

를 자랑하는 폴리에스터 저용점 섬유(Low Melting Fiber: 기존 폴리에스터보다 녹는점이 낮아 화학섬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친환경 접착용 섬유)다.

아울러,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사업에 총 9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복, 을지태극연습으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9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비상대비 훈련인 '2019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는 조사연습인 을지연습을 했으나 남북, 북미회담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올해는 훈련 형태를 대대적인 훈련인 국가위기대응연습 2일과 군사연습 2일로 각각 훈련한다. 지난 훈련과 다른 점은 8월 셋째주에서 5월 마지막주로 연습시기가 변경됐으며, 한국군 단독 전력이 참가한다.

전북지역본부는 을지태극연습을 통

해 전쟁과 테러 발생시, 발생 가능한 공사의 위기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 안보의식과 비상시 행동요령 인지도를 제고시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산발 방화, 현장인부 이탈 등 생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 상황을 가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실제상황처럼 진행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4월 30일 용산구 소재 국립극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7일부터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상품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활용해 보증서를 발급, 총 3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보증 신청가능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종사자(제주지역 제외)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기업이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4~8 등급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3개월 주기)로 상환하며, 대출금리는 연 1.5%(올해 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변동이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건강한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다

농림축산식품부·aT, 독일서 열린 국제교통포럼 참가 전통주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독일 라이프치히 컨벤션센터(CCL)에서 '2019 국제 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관회의'에 참가해, OECD 내 장관급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주(酒), 전통차(茶) 등을 홍보했다.

ITF 교통장관회의는 OECD 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 장관급 회의로,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ITF 김경태 사무총장을 비롯, 59개국의 장관급 대표단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1,300여명이 참가했다.

aT는 개최일 저녁에 열린 갈라 만찬에서 와인과 위스키에 익숙한 내빈객

들에게 전통주인 이강주와 막걸리를 활용한 카테일을 제공, 유서깊은 한국 전통주와 생활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내에서는 한국식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현재 유럽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발효식품(원장, 간장)과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영채 사무총장을 비롯, 59개국의 장관급 대표단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1,300여명이 참가했다.

aT는 개최일 저녁에 열린 갈라 만찬에서 와인과 위스키에 익숙한 내빈객

들에게 전통주인 이강주와 막걸리를 활용한 카테일을 제공, 유서깊은 한국 전통주와 생활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내에서는 한국식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현재 유럽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발효식품(원장, 간장)과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영채 사무총장을 비롯, 59개국의 장관급 대표단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1,300여명이 참가했다.

aT는 개최일 저녁에 열린 갈라 만찬에서 와인과 위스키에 익숙한 내빈객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 전수'

하림, 여름 맛이 닭가슴살 황금 레시피 공개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몸매 관리에 부쩍 신경이 쓰이는 시기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수. 종합 식품기업 (주)하림이 닭가슴살을 활용한 맛있고 간편한 다이어트 레시피를 공개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손질과 활용이 어렵지 않아 건강한 다이어트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이번엔 하림이 제안하는 레시피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닭가슴살 카레 스프, 닭가슴살 곤약 두유 리조토 등 칼로리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기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메뉴들이다. 하림 자연실록 가슴살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여개 농가로부터 건강한 병아리를 선별해 마늘 등의 기능성 사료를 먹여 면역력이

강하고 육질이 좋았으며 신선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하림 자연실록 가슴살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준비했다"며 "간편하고 맛있는 닭가슴살 레시피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북농협, 한우 번식성적 향상 위한 컨설팅 '호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28일 무진장축협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40여농가와 한우 번식우 번식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진안읍 가림리 소재 신경도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 교육·컨설팅으로 우

랑 안소 혈통관리를 위한 선별, 계획 교배 및 도태기준, 분만 후 어미소 및 송아지 관리, 번식우의 분만 전·후 질병관리, 번식우의 경제수명 연장 등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통해 우량번식 농가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만간격 단축 등 번식성적 개선을 위해 진행한 교육·컨설팅은 경영·사양·질병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강의와 농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석한 농가들은 "번식우 인공수정 및 송아지 생산기술 교육, 번식우 사양 및 질병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실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교육·컨설팅을 통해 우량송아지 생산과 번식성적 향상을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축산현장에서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신기술 보급 등 축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